

中 쓰촨성 강진

이러다가 올림픽 마저... 충격·긴장

티베트 사태 이은 참사 中 지도부 위기의식 원자바오 총리 “어떻게 이런 일이...” 탄탄

2008 베이징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티베트 사태를 비롯해 각종 악재를 겪고 있는 중국에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지진 참사마저 덮치면서 중국 지도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티베트 사태가 사실상 수그러들면서 한 시름을 덜었던 중국으로서 12일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이러다간 국운을 건 베이징올림픽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는 것이냐는 위기 의식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긴급 지시를 내리고 “최대한 빨리 사태를 복구해 재해지역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도 지도부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서민 총리로 명망 높은 원자바오 총리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난 현장에 급파돼 현장 구조 및 응급 복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원 총리는 그러나 비행기에서 당장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숨기

지는 못했다.

지도를 탁자에 펼쳐두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정에 포착된 그의 표정은 “대책 마련에 만전을 지시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하늘의 무심함을 탓하며 가슴답답해 하는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원 총리는 이번 지진 피해를 ‘대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에 대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자신감, 용기, 리더십”이라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해 대재난을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 피해로 쓰촨성에서만 5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여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워낙 큰데다 건물, 교통, 통신, 전력 등 각종 인프라마저 파괴되면서 복구에 상당한 시

간과 돈이 전방미하여서 지도부의 주름살은 늘어난다고 있다.

한편,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번 대지진의 사망자 수를 숨기지 않고 발표하는 등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공개하고 있다. 32년 전인 지난 1976년 허베이(河北)성 탕산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서 3년 뒤에 사상자 수를 축소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은폐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공산당의 대형참사 대응책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위로부터의 지도’를 펼쳐나가고 ‘군중동원식’ 재난구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원폭 252개 위력

유라시아·인도板 충돌 발생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지진은 원자탄 252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맞먹는 규모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만 중경대 지진연구소 천차오후이 교수가 분석했다.

천 교수는 이날 대만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히말라야산맥과 인접한 쓰촨성의 이번 지진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지진 관측 수치가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청두에서 서북쪽으로 92km 떨어진 곳으로, 진앙지 심도는 지하 29km였다. 특히 이번 지진의 규모는 지난 1976년 24만명의 사망자를 낸 탕산 대지진의 규모와 같은 7.8로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고 천 교수는 말했다.

학술적으로는 지진 강도는 규모가 1씩 증가하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32배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지진의 위력은 지난 99년 9월 대만 대지진(규모 7.3)의 20배에 이를 것이라고 천 교수는 밝혔다. 이는 미국이 2차대전 중전 직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52개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천 교수는 이런 규모의 강진은 지구상에서 매년 10차례 정도 발생하는데 이미 올해들어 일본, 인도네시아에 이어 쓰촨이 세번째 지진 발생지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 두장옌에서 12일 발생한 강진으로 붕괴된 한 병원. 폭격을 맞은듯 무너져 내리면서 폐허로 변했다.

20세기 최악 ‘탕산 지진’ 악몽 재현 우려

중국 쓰촨성을 덮친 대지진의 피해가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세기 최대·최악의 지진으로 불리는 1976년 중국 탕산 지진 피해에 필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탕산 지진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76년 7월 28일 160만명에 이르는 주민 대다수가 잠든 오전 3시 42분, 이번 쓰촨성 지진과 같은 리히터 규

모 7.8의 강진이 허베이성 북동부의 탕산을 뒤흔들면서 발생했다.

지진이 지속된 시간은 10초에 불과했지만 50km 면적에 걸쳐 수십만채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산 채로 파묻혔다.

허베이혁명위원회는 당시 지진으로 인해 65만5천명이 숨지고 77만9천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중국

정부는 사망자수를 24만2천419명으로 정정하고 경제적 손실은 100억 위안대로 추산했다.

그러나 보도통제로 인해 이러한 수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3년여가 지난 뒤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피해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도 의문에 싸여 있다.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대지진을 앞두고 두꺼비가 폐지되어 이동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문화보 인터넷은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 진앙지 인근의 장수성 타이저우 등지에서 두꺼비가 이동하는 광경이 목격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시안진 탐무촌에서는 지진 발생 3일 전인 지난 9일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제역공장 도로변에 출몰했다. 두꺼비가 제역공장 주변 채소밭과 도로를 비롯해 20무(1만3천334㎡)에 이르는 지역을 새까맣게 뒤덮었으며 많은 수의 두꺼비들이 차에 깔려 죽거나 행인의 발에 밟혀 죽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닥칠 불길한 전조가 아니냐”며 불안해했지만 정작 조사를 나온 현지 전문가들은 “두꺼비 번식기로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재개? 한·중 대표 베이징 회동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중국을 방문,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영변 원자로 가동기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가는 등 핵신고 문제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6자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 본부장 이 다오위타이(鈞魚)에서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난 회동했다”며 “따마지에 접어들고 있는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협안이 두루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본부장이 지난달 임명된 이후 아직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나지 못해 상견례를 결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한·중 정상회담 준비 차 14일 중국을 방문하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왕이 외교안보부 부부장을 만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김 본부장이 베이징에 나을 씩이나 머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핵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김계관 부상과 만날 일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 건축·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토목·환경·건설·협력·기관
 · 건축수업설, 업무·주택·공공기관·주택·시설
 · 관광·문화·체육·시설·의료·시설·교육·시설
 · 도로·교량·철도·철도·건설·건설·관리·관리
 · 도로·교량·철도·철도·건설·건설·관리·관리
 · 도로·교량·철도·철도·건설·건설·관리·관리

· 서울·경기·충청·강원·전라·호남·제주·충청·충청·충청·충청·충청
 · 서울·경기·충청·강원·전라·호남·제주·충청·충청·충청·충청·충청
 · 서울·경기·충청·강원·전라·호남·제주·충청·충청·충청·충청·충청
 · 서울·경기·충청·강원·전라·호남·제주·충청·충청·충청·충청·충청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1.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 2.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 3.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14일 현재, 무등산 문태정사 극락전 납골당에 1,200여점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